장마철을 뽀송뽀송하게? …습기제거제 잘 골라야!

제품별로 성능·효과 '천차만별'

시중에 판매되는 습기제거제 중 롯데 쇼핑 '통큰 참숯 제습왕'과 옥시레킷벤 키저 '물먹는 하마'의 제습력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가 선호 하는 습기제거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습력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 었지만 제품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있었 다고 16일 밝혔다.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는 제습력은 통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등 2개 제품 은 한국산업표준(KS) 낙하충격 시험 권 장기준대로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업 체에 자발적 리콜(회수)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엘지생활건강 등 4개 업체는 제품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해당 제품의

한국소비자원, 12개 제품 시험결과 발표 제습력은 물먹는 하마·통 큰 참숯 제습왕 '우수' 용기 파손 등 내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큰 참숯 제습왕과 물먹는 하마 등 2개 제 품이 가장 우수했다. 이들 제품의 제습 량은 330g 이상이었다. 12개 제품의 평 균 제습량은 280g이다.

버블윅코리아 '버블윅 참숯 습기제거 제'와 (주)크린피아 '자연나라 습기제거 제' 등 2개 제품은 제습량이 230g로 가 장 떨어졌다.

습기제거제가 넘어졌을 때 내용액이 새어 나오거나 떨어뜨렸을 때 용기가 파 손되는 제품도 있었다. 아니코생활환경 '물먹는 고래'와 버블윅 참숯, 자연나라 등 3개 제품은 용기가 넘어지면 보호 뚜 껑이 있는 상태에서도 내용액인 염화칼 슘액이 새어나왔다. 염화칼슘액은 금속 을 부식시키고, 옷이나 신발 등 가죽제 품에 묻으면 가죽이 단단하게 굳어 피해

통큰 참숯 제습왕과 엘지생활건강 때 용기가 파손돼 내용물이 샜다.

교환·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 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롯데쇼 핑 관계자는 "현재 용기의 내구성 개선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제 품은 제습력과 내구성에서 모두 우수 평 가를 받은 물먹는 하마였다. 다만 1개당 가격이 1015원으로, 12개 제품 중 세번 째로 비쌌다.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곰팡이 제거와 냄새 제 거 등은 습기제거제 직접 성능이 아니므 로 제습력과 내구성을 기준으로 선택해 야 한다"며 "특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투습막과 용기 등에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습기제거제 성능 평가

판매업체	1개당 가격(원)	제습성능
홈플러스㈜	791	**
버블윅코리아	834	*
애경에스티㈜	863	**
롯데쇼핑㈜	885	***
태광유통	960	**
아니코생활환경㈜	988	**
㈜산 도깨비	995	**
㈜다이소아성산업	1,000	**
㈜엘지생활건강	1,002	**
㈜옥시레킷벤키저	1,015	***
(주)크린피아	1,209	*
㈜이마트	1,238	**
	홈플러스㈜ 버블윅코리아 애경에스티㈜ 롯데쇼핑㈜ 태광유통 아니코생활환경㈜ ㈜산 도깨비 ㈜다이소아성산업 ㈜엘지생활건강 ㈜옥시레킷벤키저 ㈜크린피아	홈플러스㈜ 791 버블윅코리아 834 애경에스티㈜ 863 롯데쇼핑㈜ 885 태광유통 960 아니코생활환경㈜ 988 ㈜산 도깨비 995 ㈜다이소아성산업 1,000 ㈜엘지생활건강 1,002 ㈜옥시레킷벤키저 1,015 ㈜크린피아 1,209

★★★:제습량이 상대적으로 많음 ★★:제습량이 평균 수준 ★:제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판매되는 습기제거제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품에 따라 제습력과 내구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 고객이 마트에서 제습제 제품을 살펴보 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빙수 한그릇 = 밥 4공기

시중 판매 빙수 대부분이 칼로리 폭탄

심혈관계 질환·다이어트중일땐 주의해야

커피전문점·햄버거·베이커리 매장에서 여름철 한정 디저트 메뉴로 판매 되고 있는 각종 빙수의 최소 칼로리가 흰쌀밥 한공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주요 커피전문점·햄버거·베이커리에서 시판중 인 대부분의 빙수는 열량이 최소 260Kcal(킬로 칼로리)이상으로, 200g기 준 흰쌀밥 한공기(250Kcal)보다 높았다. 특히 비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녹차를 함유한 일부 빙수는 그야말로 칼로리가 '폭탄'급

조사대상 26개 빙수 가운데 열량이 가장 높은 빙수는 바로 '뚜레쥬르의 녹차 스누우러빙'이었다. 총중량이 690g으로 열량이 950Kcal에 달했다. 이 열량은 무려 흰쌀밥 4공기에 해당된다.

포화지방도 %이나 함유하고 있어 한그릇을 모두 먹었을 경우 성인기준 포 화지방 하루 권장량의 60%를 섭취하게 된다. 역시 녹차가 들어있는 커피전문 점 이디야커피의 아이스리얼 빙수 열량도 772Kcal나 됐다. 이는 이들 빙수의 경우에는 씁쓸한 맛의 녹차를 희석시키기 위해 칼로리가 높고 당성분이 많은 다른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디야커피의 치즈딸기빙수 열랑 도 804Kcal에 이르렀고, 아이스민트초코빙수도 800Kcal나 됐다. 뚜레쥬 르의 팥스노우러빙의 열량도 775Kcal를 나타냈다. 롯데리아의 달콤한 젤 리빙수도 737칼로리였고, 엔제리너스의 홍시빙수도 720Kcal를 기록했다. 그나마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빙수는 엔제리너스의 유자몽빙수(260K→ cal)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열량이 흰쌀밥 한공기를 웃돌았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빙수는 과도한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열량이 굉장히 높다"며 "심혈관계 건강이 좋지 않거 나 다이어트중인 사람은 먹기전에 메뉴판에 있는 열량·포화지방·당분·나 트륨 함유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수입차 9326대 '리콜'

혼다 CR-V와 재규어 레인지로버, 포드의 익스 플로러, 한국지엠의 말리부 등 9326대가 리콜된 다.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 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수 입·제작·판매한 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 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2003년 3월 14일에서 2006년 12 월 28일 사이 제작된 CR-V 2730대와 2003년 10월 6일~2007년 6월 29일 만들어진 어코드 1647대를 리콜한다. 이들 차량 에어백에는 일본 다카타 제품 이 사용돼 전개시 지나치게 강한 폭발로 내부 부품 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튈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은 전 세계적으

혼다, 에어백 결함 재규어, 배터리 방전 포드, 주행중 시동 꺼져

로 문제가 된 상황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한 재규어 XK에 서는 시동을 꺼도 전면 차폭등은 꺼지지 않아 배터 크잡김방지장치(ABS) 자기진단 기능이 정상 작동 하지 않아 고장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됐다. 같 은 회사 레인지로버에서는 전륜 브레이크호스에 균·파열이 생겨 브레이크액이 새 제동성능이 떨어 질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규어는 2011년 7월 2일~2015년 1 월 13일에 만들어진 재규어 XK 44대, 2014년 8월 21일~2015년 2월 12일 제작된 디스커버리4 947 대, 2005년 3월 14일~2012년 7월 26일 생산된 레 인지로버 1094대를 리콜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 중 2014 년 2월 14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 사이 제작된 24대 에서는 연료펌프 모터가 불량해 주행 중 시동이 꺼 질 가능성이, 같은 해 3월 13일~12월 10일 생산된 311대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로 계기판이 정상 작동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지엠의 말리부에서는 연료컨트롤유닛의 회 로 부품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 문제로 인한 리콜 대상은 2013년 9월 3일~2014년 2월 19 일 제작된 1358대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17일부터 각 사 서비 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문의는 혼다코리아(☎ 080-360-0505),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포드세일즈서 비스코리아(☎ 02-2216-1100), 한국지엠(☎ 080-3000-5000)으로 하면 된다.

저축銀 '돈다발 이미지' 대출광고 못한다

"쉽게" "편하게" 문구도 사용금지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특정시간대에 방송광고를 못하게 된다. 또 광 고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 에 맞춰 저축은행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저 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 촉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아울러 '쉽게' '편하게' 같은 문구도 사용할 수 없어진다.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 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전달하도록 했다.



